

전남 중부권

‘食사랑 農사랑’ 부대끼며 배운다

학생 2000명 팜스테이 마을서 농사·문화·생활체험

농협-도교육청 협약

전남도내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유도와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는 농촌 체험 학습이 활성화된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영조)와 전남도 교육청은 26일 강진군 성전면 청자골 달마지 팜스테이마을에서 농촌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식(食)사랑 농(農)사랑 체험학습’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식(食)사랑 농(農)사랑 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식의 중요성과 농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남농협, 전남도

교육청, 광주·전남 팜스테이협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농촌체험 학습이다.

이날 협약식은 강진 성전초등학교 전교생 120여명, 광주·전남 팜스테이협의회 회원 40여명, 마을 주민 50여 명이 참석해 염색체험, 떡메치기, 나무목걸이 만들기, 새송이버섯 따기, 도룡태 굴리기 등 다양한 체험을 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앞으로 전남지역 학생 2000여 명이 도내 팜스테이마을 협의회 소속 농촌마을을 방문해 농사체험, 생활체험, 문화체험 등을 할 예정이다.

전남농협은 ▲체험마을 안내와 체험학습비 지원 ▲올바른 먹거리 교육을 위한 각종 자료 ▲우리 농산물로 만든 계절별 건강식단 등을 지원한다.

조영조 전남지역본부장은 “농촌마을에서의 다양한 체험활동은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농업의 중요성 등 농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체험학습 사업이 범국민 운동으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고막 치패 보호망 치는 어부들

강진군 도암면 용산마을 어촌계원들이 한 달 전 뿌려놓은 고막 치패가 고기와 새들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보호망을 설치하고 있다. 강진군은 강진만에 패류 모래장을 조성해 어업소득 향상을 꾀할 방침이다.

(강진군 제공)

2014년 조성 ‘개구리 생태공원’ 건축디자인 아이디어 공모합니다

담양군, 내달 10일까지

국내 유일의 ‘개구리 생태공원’ 조성에 나선 담양군이 오는 10월 10일까지 건축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에 나섰다. 응모는 초·중·고·대학생과 일반인 등 자격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군은 오는 2014년 까지 총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관광·학습의 메카가 될 ‘개구리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개구리 생태공원’은 대지면적 1만5000여㎡에 전시관과 생태관, 사육실 등 건축물을 비롯해 생태연못,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갖춘 야생 생태학습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건축 디자인 아이디어는 우선 개구리의 환경·생태·생물자원학

적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건축디자인으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또한 개구리 생태 연구 및 전시, 체험교육장으로서의 서식환경과 습지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건축디자인 응모자의 순수 창작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건축물 자체가 ‘친환경 건축물 인증기준’에 따라 1등급에 부합되는 가능성을 갖춘 최적의 작품으로, 녹색성장의 친환경적 의미를 부여하고 미래지향적인 건축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군은 공모작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선작 1명(시상금 500만원)과 우수상 1명, 장려상 2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문의(061-380-3067)

/중부취재본부=정재근기자 jgg@

장흥군 ‘물순환 분야 우수 지자체’

장흥군은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주관한 ‘생생(生生)도시 경연대회’에서 ‘물순환 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군은 이번 공모에서 1차 서면 심사, 2차 현장 평가를 거쳐 지난 20일 열린 최종 경연대회에서 경기 용인시를 제치고 장흥군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에서 장흥군은 탐진강 생태복원 사업과 함께 아름다운 탐진강 가꾸기 사업, 하수종말 처리시설과

탐진강 수산연구센터 운영, 정남진 물과과학관 건립 추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생생(生生)도시 ‘생동하는 생태도시’를 의미한다. 녹색성장위원회가 녹색성장 우수 도시 모델을 발굴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자 지난 2009년부터 매년 공모해 우수 지자체에 기관 표창과 중앙부처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청자골 발전협의회 발대 농어촌공 강진완도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완도지사(지사장 김의출)는 지난 25일 강진지사 회의실에서 급변하는 농업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청자골 강진지역 발전협의회’ 발대식을 가졌다.

발전협의회는 전남도의회 의원, 강진군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농민대표,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 10명과 강진완도지사장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발전협의회는 강진지역 발전과 농정 비전 실현을 위한 소통·공감·협력의 장을 마련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발전에 일조하게 된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화순 친환경 농특산물 수도권서 인기

서울시청 등서 직거래 장터

돼지감자차·새송이버섯 불티

화순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이 수도권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다.

화순군은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새로운 판로 개척을 위해 대도시권의 소비자와 생산자를 직접 연결하는 직거래 장터를 25~26일 서울시청 광장과 양천구청영 양천공원에서 운영했다.

이번 장터에서 판매된 농·특산물은 돼지감자차, 새송이버섯, 불미나리 인진쑥, 무농약 잡곡류.

이번 장터는 생산농가가 직접 참여해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 형식으로 마련돼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호교류 및 직거래 장터를 통해 청정 화순의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 및 확대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조성수기자 css@

전 북

NH농협보험 변산수련원 개원

수영장·사우나 등 갖춰

농업인들의 교육과 휴양 공간으로 활용될 NH농협보험 변산 수련원이 지난 25일 문을 열었다.

전북농협은 사업비 419억원을 들여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부지 3만 5084㎡에 지하 1층·지상 9층, 전체 건물면적 1만2641㎡ 규모의 수련원을 건립했다.

3개의 회의실로 구성된 컨벤션 센터와 74개의 객실을 갖췄으며 수영장·사우나 등의 편의시설도 들어섰다.

전북농협은 이날 개장식에서 전북 지역 다문화가족 100가구에 수련원 무료 이용권을 전달했다.

변산농협 박찬홍 조합장은 “전국 농협 조합원과 도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최고의 관광 휴양형 수련시설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부안군-사회적기업 지원 협정

부안군은 지난 25일 예비 사회적기업인 부안군 장애인 근로자업장, (사)생명평화 마중물과 지원약정을 체결했다.

부안군 장애인 근로자업장은 김 제 조·판매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생명평화 마중물은 리사이클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지역 사회 공헌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두 업체는 최근전북도 예비

사회적기업에 지정됐다.

군은 양 업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 기업에 각각 12명과 7명의 일자리창출 사업비용(인건비)을 1년간 지원키로 했다.

양 업체 관계자는 “적극적인 일자리창출과 지역사회 공헌으로 사회적기업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경찰 기마대와 ‘찰락’

전주시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전북지방경찰청 경찰 기마대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도 내년 국가예산 5조6895억

올보다 8% 늘어... 농수산·문화 200억~500억 줄어

전북도의 2013년도 국가 예산이 5조6800억원을 넘어섰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북도 내년도 예산은 5조6895억원으로 올해보다 8%(4233억원) 늘었다.

내년도 예산 가운데 새만금과 건설교통 부문이 1200억원씩 늘었으나, 농수산과 문화체육 부문은 200억~500억원 줄었다.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사업이 1800억원에서 2200억원으로,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이 12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새만금 신항만 건설이 3600억원에서 6850억원으로 각각 300억원 이상 늘었다.

이 예산은 연말께 국회 심의를 통

해 확정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정부의 방침 속에서 전북도의 내년도 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면서 “이는 전북도가 신

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도내 정치권이 예산 확보에 전력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새터민 초청 위문행사

남원경찰서·로타리클럽

남원경찰서(서장 방춘원)와 남원로타리클럽(회장 이정기)은 최근 북한 이탈주민을 초청, 추석 위문행사를 갖고 옥매트(시가 45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이번 위문행사는 외롭게 명절을 보내야 하는 북한 이탈주민들에게 따뜻한 추석을 맞이하고, 지역사회 의 온정을 함께 나누고자 마련됐다.

방춘원 서장은 “남원시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지역문화탐방 등 다양한 지원을 갖고 옥매트(시가 45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단 신

전주시 공공일자리 참여자 안전교육

전주시는 최근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일자리 참여자 150명과 사업부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소속 전문강사와 직업상담사를 초빙해 사업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교육, 사업종료 후 안정적 일자리 전환을 위한 맞춤형 취업상담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한시적 일자리사업에 머물지 않고 사업종료 후에도 소득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농촌지도자·생활개선 한마음대회

(사)한국농촌지도자 군산시연합회(회장 채수양)와 (사)생활개선 군산시연합회(회장 정정숙)는 공동으로 최근 월명 체육관에서 ‘2012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군산농업의 희망은 우리에게 있다”는 주제로 열린 이날 대회는

(사)농촌지도자 군산시연합회와 (사)생활개선 군산시연합회간 첫 통합대회로 치러졌다. 채수양 회장은 “이번 한마음 대회를 통해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가 힘을 합친다면 분명 농촌에 희망이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남원시 추석연휴 관광지 무료 개방

남원시는 추석연휴인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항공우주전문대 등을 무료개방한다.

춘향전의 무대로 알려진 광한루원은 춘향의 얼이 담겨 있는 춘향사당, 견우직녀의 애뜻한 사랑이 서려 있는 오작교, 달맞이

장소인 완월정 등 볼거리가 가득하다.

춘향테마파크는 춘향이야기를 만남, 연약, 이별, 시련, 축제의장 등 총 5마당으로 테마화해 조성한 곳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부안군 보건소 독감 예방접종

부안군 보건소는 10월 8일부터 11월 2일까지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접종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층, 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자, 결혼이민자 및 가족 등이다. 일반주민은

7000~750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2010년 7월 이후 접종 경력이 2회 이상이 안되는 만 6개월~8세까지의 영·유아는 한달 간격으로 2회 접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장류 특구’ 순창 관광객 45% 증가

8월까지 169만명 다녀가

올해 순창군을 찾은 관광객이 지난해 대비 45% 증가했다.

26일 순창군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순창을 찾은 관광객은 169만4000여명으로 지난해 116만7000여명에 비해 4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객이 증가한 요인으로는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순창고추장 투어’와 지난 6월 여행 파워블로거 30여명을 초청해 가진 1박2일 캠프투어 등 영향으로

수도권 관광객이 크게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걷고 싶은 길과 ‘섬진강변 자전거길’, ‘섬진강 마실 캠핑장’ 등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한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군은 연간 관광객 300만명 시대를 열기 위해 ▲강천산 관광휴양 단지 개발 ▲섬진강 항가 오토캠핑장 ▲구림 호정소 오토캠핑장 ▲북쪽 추령 장승공원 등을 추진중에 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